

사물 인터넷 시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 - 5대 본질 요소 중심으로

이면재*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IoT Era - Focus on the five essential elements

MyounJae Lee*

Professor,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현대 사회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도 발전하는 산업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발전하지 못하고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로 구성된다. 비대면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코로나 시대에는 본질은 변화하지 않지만 사회적 책임감이 있게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의 5대 본질 요소를 중심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논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구현 방법을 연구한다.

주제어 : 사물인터넷 시대의 교회, 코로나, 코로나 시대의 교회, 교회의 본질, 사회적 책임

Abstract Modern society is rapidly developing into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and there are industries that develop even in the Corona era. However, the church is not developing and responding enough to the Corona era, and it is shaking the existence of the church itself. The essence of the church consists of worship, evangelism, education, service, and companionship. In the era of Corona, where non-face-to-face safety is important, the essence does not change, but efforts to embody the essence of the church in a socially responsible manner are needed.

This paper discusse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in this respect, focusing on the five essential elements of the church. To this end, we examine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hurch and study the implementation methods suitable for the Corona era.

Key Words : IoT-era Churches, Corona, Corona-era churches, church essence, social responsibility

1. 서론

코로나는 침방울, 즉 비말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강화되고 있다. 이 비대면 강화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 실물경제의 위기, 재

출현할 신종 감염병, 방역 공조 체계를 위한 국제 공조, 우울증 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

코로나의 발생으로 소비자 지출은 감소되었고, 공장도 많이 폐쇄되었으며, 하늘과 바다를 오가는 물류망도 파괴되었다. 사회, 경제, 문화를 포함한 일상과 산업 자체를

본 논문은 2021학년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 이면재(davidlee@bu.ac.kr)

접수일 2021년 2월 15일 수정일 2021년 3월 26일 심사완료일 2021년 3월 29일

바꾸고 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파괴와 질서가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가 산업과 문화의 대변혁을 가져오면서 많은 지식인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 즉 포스트 코로나를 예측하고 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예측과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교회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인터넷 유튜브에 익숙한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발전되는 산업이 있고 쇠퇴하는 산업이 있듯이 교회도 발전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발전하는 산업들은 비대면 강화의 특성을 잘 살린 산업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 사용자 동의하에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알기 위한 추적 및 암호 기술, 옥션, 쿠팡 등의 쇼핑몰과 관련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산업, 배달의 민족과 관련된 IT 산업등이다. 이 모든 발전하는 산업들은 코로나의 비대면 특징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했고 다양한 콘텐츠를 소유하지 못한 결과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미디어의 재생산,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 사생활 보호등의 온라인 미디어의 장점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대면과 온라인이 적절하게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가진 교회로 탈바꿈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목회 방향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을 설명한다.

2. 본론

교회는 크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어진다. 유형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고, 무형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 자체를 말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이다.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역할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학자들은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밀라드 J. 에릭슨은 전도, 교제, 예배 봉사를 언급하였고, 호켄아이크는 진리의 선포, 친교, 봉사 3가지를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정했다[1]. 이 요소들을 종합하면 전도, 예배, 교육, 봉사, 친교로 정리될 수 있다.

예배는 가치있는 지위를 가진 분에게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행위를 칭한다. 예배 용어는 현재 예배 의식 즉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등의 형식으로 한정되어 사용되지만 실제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행위를 말한다. 이 예배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인식과 더불어 무리한 대면 예배 강행으로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교회는 이웃 즉 즉 사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회적 책임감의 결여로 발생한 문제이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18절에서 20절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도 관련되어 있다. 전도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로 흡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이 전도는 개인적으로 입술로 하는 전도가 있고 사회 구조적으로 하는 폭넓은 의미의 전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수가 구원자이시다고 말하는 입술 전도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전도이다. 이 전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교인수를 증가하는 것을 전도로 오해를 줄 수 있다.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교육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 교육 요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하는 사람과 피교육자가 존재하며 가르치는 내용과 수단이 필수적이다.

먼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교육자로 표현한 부분을 살펴본다. 마태복음 13:34절, 마가복음 1:21절, 누가복음 6:6, 요한복음 6:59, 누가복음 13:22절, 누가복음 19:47절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동하시는 지역마다 회당에서 성에서 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것이다. 가르침의 내용은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봉사는 이웃과 사회를 향한 가장 실천적인 섬김이다. 봉사 활동은 구제, 선교, 섬김, 헌신, 공궤(供饋)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회는 사도행전 시대 즉 교회의 시작 시작부터 이웃에 대한 섬김은 행해왔다. 구약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추수할 때에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은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잠언서 19:17에는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으며 구약 시대에서는 봉사 제도로 매 3년마다 따로 드리는 십일조와 추수때의 아량이 있다. 3년마다 드리는 또 다른 십일조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 성격의 십일조이다. 정기 십일조가 하나님의 증양 성소에 드리는 정규 헌금이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얼마를 남겨 놓는 아량이 있다. 신명기 24:19-21, 레위기 19:9-10절에 나타나 있다.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봉사 제도의 근간은 누가복음 10:25-37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비유를 통해 착한 이웃, 선한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며 교회는 자비를 베푸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난 요소이다.

친교는 헬라어에서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다, 나누다', '관계가 있다', '참여하다', '뉘을 나누다', '의견을 같이 하다', '공동체를 이루다', '성 관계를 맺다' 등을 의미한다. 이 코이노니아를 요일1: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귀이자 그리스도인들과 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감으로 표현된다. 즉 친교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되므로 사회적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름으로써,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귀도 이루어지고 있음도 암시하고 있다.

친교는 사도행전 2:42에 잘 표현되어 있다 예루살렘에 생긴 첫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말하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귀는 사도의 가르침을 중시하며 성찬식과 합심 기도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전도, 예배, 교육, 봉사, 친교로 살펴보고 각 본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본질적 요소의 사회적 책임감과 비대면에 적합한 구현방법을 논한다.

3.1 전도

전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한국 교회는 그동안 무시해왔다. 초기 영혼 구원과 구령애만을 강조한 결과이다. 대표적인 예로 잃은 양 찾기, 총동원 전도 주일, 열린 예배, 노방전도, 전도폭발 등의 다양한 전도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 프로그램들로 인해 영혼이 구원된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의 전도도 성숙해져야 한다. 즉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사회적 책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안에 임했음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4:17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주어진 나라이며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 나라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것이 전도의 사회적 책임이다. 전도의 사회적 책임을 알아보기 위해 누가복음 4:17-19절을 살펴본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쁨을 부으시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셨다. 이것은 개인적인 입술전도로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결과가 나타나 있다.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 먼 자, 눌린 자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직접 이를 행하셨다. 요한복음 9:20-21절에서와 같이 눈을 뜨게 하였다. 누가복음 8:27-29절의 거라사인 땅에서는 귀신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동시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이다. 눈이 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귀신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생활의 향상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7:22절에서와 같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변화를 말씀하셨다. 바꾸어 말하면 전도의 결과는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의 삶의 질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전도는 예수를 받아들인 결과 일어난 삶의 결과로 전해야 한다.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은 확장되어야 하며 이 확장은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낸다. 교회는 개인의 구원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일

3. 교회의 사회적 책임

어난 삶의 결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으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입술로 전하거나 집을 방문하여 예수를 전하는 것만을 전도로 생각한 것이라면 분명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인하여 온라인 채널 등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도방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번개탄TV'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징검다리선교회 [3], 인터넷으로 신앙상담이나 양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빌리그래함 전도집회, 유튜브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줌이나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도를 진행하고 있다.

복음전도에는 대중전도, 가정전도, 개인전도, 그리고 문서전도, 온라인 전도가 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대면 중심의 전도였기에 비대면 전도에는 익숙하지 않다. 이제 이 방법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하고자 한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보편화 되어 있어 용이하지 않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첫째, 대중전도는 실지로 유튜브 온라인 전도하는 방법이다. 기존 총동원 전도주일, 잃은 양 찾기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것은 흥미와 관심유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게임성을 삽입하여 N번째 전달받은 사람이 모두 시청하고 감상평을 쓴 경우에 상품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총동원 전도 주일을 기획하는 것이다. N번째 입장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방법도 참여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또한 선물도 연령층에 맞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모티콘이나 선물 아이콘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방향성보다는 사회자 또는 설교자가 화면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약조건이 따른다. 유명 연예인의 간증이나 유튜브 채널을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둘째, 가정전도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같은 시간대에 자녀들과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 가족간에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전도와 신앙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전도는 부모의 성품과 결단에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의 성숙함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 비대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간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나 분주함으로 하지 못했던 생활 나눔이나 고민을 깊이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개인전도이다. 개인 전도는 지인들을 전도하는 방법이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개발한 4명리 전도와 전

도폭발, 파라솔전도 등의 방법이 이에 속한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콘텐츠로 개인 전도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개인 전도를 위해 베푸는 것을 상대방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전도를 위한 관계 형성이 아닌 관계 자체가 이웃 사람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웃의 평안을 빌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물어보고 성의있게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는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한다.

넷째 문서 전도이다.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메일, 유튜브, SNS를 주로 전도에 활용한다. 비대면 전도에는 질높은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영리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전도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이 속한다. 자신이 직접 유튜브를 만들어 전도희망자들에게 배포하거나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것 등이다.

이 모든 전도 방법에는 신뢰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서 병든 자에게 치료 방법을 명하시면 병자는 예수를 신뢰함으로 순종하였다. 전도만을 위한 신뢰 형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초기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찾아가 환자들을 치료하고 아픔을 공감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전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13].

3.2 예배

현재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며 대면 예배의 방법과 순서를 그대로 온라인에서도 사용한 예배 실행을 송출한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참석 숫자도 극히 제한적이다.

기존의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대면 예배 중단은 예배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확진자의 대폭 증가와 신천지 교회발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교회발 확진자라는 단어가 새롭게 생겨났다. 대면 예배, 대중 예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강하게 뿌리 잡고 있다. 목회자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예배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2].

설교의 중요성은 대면예배보다 강화되었다. 온라인 예배는 복제와 전달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설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설교시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교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유명한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성도들이 들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더 철저한 성경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설교 준비를 진행하고 완성해야 한다. 설교 컨설팅을 받는 방법도 제안한다.

코로나로 대표되는 언택트 사회의 도래는 시스템 전환을 요구한다. 설문조사결과[4]에 따르면 기독교인 절반 이상(54%)이 온라인 예배를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19%는 온라인 예배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예배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소속 담임목사 1천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5]에 의하면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올리는 '온라인 교회'를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냐는 질의에는 63.5%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 19를 겪은 한국 교회가 관심을 뒤야 할 과제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라는 답이 43.8%로 가장 많았다.

이제 목회자들의 인식과 다르게 개신교인 즉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 크리스찬아카데미, 기독교사상과 공동 발표한 개신교인의 온라인 예배의 인식조사 결과[6]는 다르다. 이 조사는 2020년 7월 21~29일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 3월 말 40.7%였지만, 약 4개월 뒤엔 27.8%로 감소되었다.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주일성수를 할 수 있다는 응답은 54.6%에서 61.6%로 증가하였다. 즉 목회자가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신교인들은 예배로 인정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로 보았을 때 목회자와 개신교인 모두에게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 출석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도 감소되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전처럼 교회에 출석해 예배드리겠다'는 응답은 73.4%, '필요한 경우 온라인·기독교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은 16.9%였다. 3월 말과 대비하면 '예전처럼 교회 출석'이라는 답변은 11.8% 포인트 감소되고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 응답은 4.4% 포인트 증가되었다.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자도 1.6%에서 6.5%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대면예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증가되었지만 장기화 되는 경우 이 비율은 증가될 수 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7]. 이 주

장에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정부 당국의 부당한 압력과 집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성도들의 요구,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시청하는 것을 예배로 부르는 것에 대한 반감, 온라인 예배는 성도를 '청중' 내지는 '구경꾼'으로 만든다는 편견이 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을 만들어내는 일에 '방송 선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편견이다.

이미 대면 예배에서도 많은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고 모니터로 예배를 드림으로 다양한 교회의 말씀 들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 예배 드리는 형태로 예배의 방법을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세상을 성과 속으로 보는 이원론적 사상이 동일하게 대면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예배는 마태복음 18:20 말씀처럼 두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높이는 행위가 예배라면 온라인 예배도 예배임을 목회자는 기억해야 한다. 목회자의 예배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12].

예배의 주체는 성도들이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웃과 사회를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의무와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성도의 이중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사회적 책임감에서 드러지는 것이 합당하다.

목회자는 대면 예배 중단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요한복음 4:23절에서와 같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성도들이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에는 첫째, 예배중 자신의 예배 모습과 음성을 켜놓은 상태에서 대면 예배에서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화답하는 방법이다.

둘째, 찬송을 드리거나 말씀을 운독하거나 기도를 드릴 때 성도와 목회자의 음성이 함께 섞여져서 송출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성가대 특송의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연습하고 예배시간에 집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음성을 섞어서 송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대면예배 때 현장 예배, 교회건물안의 예배로 한정지어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적극 활용하여 예배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안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성도들에 대한 교육적 시설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 예배자 학교와 가정 예배지를 발간[15]하여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인도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표 기도 안내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여 현장 예배의 긴장감을 가지게 하고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는 가정 예배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묵도, 찬양 등을 가족들 중에 대표자가 인도하고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방법이다.

3.3 교육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로 급속하게 성장되어 왔다. 순모임, 목장모임, 제자 훈련, 구역장 훈련을 포함한 성인 훈련과 주일학교의 공과공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져 왔다. 모두 대면 교육이다. 또한 사회적인 책임으로 아버지 학교, 자녀교육등의 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중소형 교회들은 인력적, 재정적 한계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는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된 상황이다. 따라서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는 것은 교회 목회자의 몫이 되었다.

이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육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검색하고 이를 정리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구역 모임의 경우 화상으로 교육하고 과제나 나눌 내용을 별도의 온라인 카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이다. 암송의 경우에도 화상으로 암기를 체크하는 것이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 인터넷을 검색하여 실지로 성도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동시에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로, 교회는 온라인 공간을 교육과 상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대면으로 목회자에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온라인 공간에서는 쉽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활용하여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은 줌이나 구글미팅 등의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 질수 있다.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참가자를 위해 대면 교육 실황을 그대로 송출하는 방법이다. 또한, 대부분 100-200명 내외의 소규모 모임이 많기 때문에 무료 또는 유료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넷째, 교회학교 교육 붕괴를 위해 목회자, 교사, 학생으로 구성되는 사이버 교회 학교를 개설과 가정 신앙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회학교의 경우 마치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교육 학점제 운영과 같은 형태로 사이버 교회 학교를 운영한다. 한 교회가 이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한계와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교단차원에서교회의 교육목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공급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는 교회학교 운영의 이해를 돕는 교육부터 신입교사 교육, 또는 교사 재교육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학교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체크하고 성장을 도울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서 가정에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이 교회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교육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새중앙 교회의 경우 카카오톡TV를 사용하여 찬양콘서트, 퀴즈대회, 고민 상담 등 청년 공감 콘텐츠를 제작하여 실시간 방송과 채팅으로 소통하고 있다. 온라인 소그룹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사회는 온라인과 대면 교육이 혼합된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 방법에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있다.

블렌디드 러닝[8]은 전통적인 수업과 온라인 자료의 통합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과 방법론을 통합하는 총체적 교육 전략이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온라인 수업(비대면)과 오프라인 수업(면대면)이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9]. 블렌디드 러닝은 강의, 사례연구, 토론과 코칭,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방법론과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 협력 학습 역시 가능해서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공동체, 학습자와 학습도구, 학습자와 학습환경 등의 연계과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플립러닝 방법도 있다[14]. 학생이 온라인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 교사와의 오프라인 수업 토론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교육방법이다.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시간을 각각 분리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몇 주는

온라인, 또 몇 주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3.4 봉사

이미 교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 국제대회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 집중한 결과로 교회 건물과 성도 수 증가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후에 마치 봉사를 전도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였다. 물론 봉사의 최종 목표는 영혼을 구원함에 있지만 봉사의 다른 목표,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아, 과부들을 조건없이 돌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교회의 봉사는 프로그램 중심적인 봉사와 교역자 중심의 봉사, 한정적인 재정 사용,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면이 부족하다. 특히 코로나 시대와 같이 재정이 부족하고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봉사는 더욱 힘들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봉사형태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급식 및 식료, 세정제 제공, 코로나 의료진들을 위한 물질적 지원과 식사제공, 월세 감면으로 고통 분담하기, 농가 일손 돕기, 음악, 이미용, 새무상담등의 재능기부전달, 지역의 방역 봉사-아파트단지, 공원, 마트등의 방역도우미 봉사 등이 있다.

3.5 교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요소중의 하나이다. 코로나로 인한 5인 집합금지 명령, 교회 예배 이후 식사 금지 등의 명령이 나오면서 교제는 많이 상실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에서 2020년 5월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설문조사 보고[10]를 보면 성도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를 목회의 중요사항으로 41.4%를 차지하였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설교 중심 목회에서 성도간의 교제를 중심으로 목회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목회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로 보면 목회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성도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의 파괴가 교회의 파괴가 될수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현재 없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결과이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제의 형태로는 심방, 소그룹 모임, 취미 모임 등이 있다.

첫째, 심방의 경우 특정 지역 차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 스루 예배가 있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심방할 수 없었던 성도와 개인의 삶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심방하게 되면 훨씬 대면 심방보다 적은 부담을 갖고 심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별다른 시스템 구입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휴대폰에 화상 프로그램을 설치한후 심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회에서 화상으로 면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방하는 방법등이 있다. 교회 예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심방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으로 하는 소그룹 모임강화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공동체성이 강한 가정교회와 일반교회(비가정교회)를 비교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기독교인 1천명으로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11]이다. 가정교회는 소그룹을 교회의 하나로 보고, 소그룹 리더를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신약교회의 모델을 지향하는 교회로 셀교회 형태이다.

두 교회 모두 '카톡/문자를 통해 교제했다'와 '전화 통화했다'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교제했다와 1:1만남이나 작은 소그룹등의 대면모임을 했다 문항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가정 교회가 훨씬 높았다. 일반교회는 '온라인 교제'가 41%인 반면 가정교회는 62%였다. '일대일 만남과 소그룹 등 대면모임을 했다'는 비율은 가정교회(68%)가 일반교회 교인(25%)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정교회가 이미 리더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소그룹 리더가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온라인 교제와 대면 모임의 비율이 높았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대예배와 같은 큰 단위의 집회와 모임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교제와 교회 공동체성이 중요함을 알게 해준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교제 형태는 예배 형태와 동일하게 대면 모임과 비 대면모임이 혼용되고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는 목회 전략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4.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교회발 확진자라는 신조어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가깝게 여긴 결과이다. 현재 사회는 코로나 발생과 유행은 사회속에서 책임감 있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전도, 예배, 교육, 봉사, 교제의 5대요소로 살펴보았다.

각 요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이웃과 사회를 위해 세상으로 파송된 존재라는 이중적 존재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 이중적 존재성은 신앙적 책임감과 사회적 책임감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대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강화를 회피하는 것보다 비대면 시스템과 대면 시스템의 균형잡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5158600005>
- [2] kyung-sik Pae, "The meaning of the Ecclesiology of J. Calvin in Reference to the Korean Church", KSSST, Vol.26, p193, 2010.
- [3]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0736
- [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218>
- [5]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5158600005>
- [6]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3930
- [7]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42>
- [8] Yu, Jae Deog , "Church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Vol.63, pp.13- 37p, 2020.
- [9] Lee Jung Ki, "Online University Education", Communication books, 2015.
- [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3066&code=23111211>
- [11] <http://www.c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9244>
- [12] Joseph Park, "Post coron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 Church and Law, Vol.7, No.1, pp.227-229,2020.
- [13] Yung Han Kim, "Korean Church and Theology's Task in the Corona Pandemic Era", Theology and the Church, Vol.14, pp.209-263, 2020.
- [14] Lee Jin Won, "Preparing for Post Corona Church Education", Presbyterian Society Theological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Vol.294, pp.41-44, 2020.
- [15] Lee Ji Hyun, "Education Pastoral Field Story:Jang Yoo Dae Sung Church's post-corona era educational ministry: the beginning of family worship for the whole generation and building worshipers of life", Korean Church and Theology's Task in the Corona Pandemic Era", Vol.499, Theology and the Church, pp.35-40, 2020.

이 면 재(MyounJae Lee)

[종신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멀티미디어학 전공
교수

<관심분야>

기독교와 IT, 기능성 게임,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엔진